

# 보성군-말레이시아, '지역축제 국제화' 본격 나선다

### 보성다향대축제·카마탄축제 상호 참가 관광 시장 다변화...외국 관광객 유치 효과 국제 외교 강화·문화도시 성장 발판 마련

보성군이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지역축제 국제화에 본격 나섰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 (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Environment Sabah)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과 지역축제의 글로벌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관광청, 전통예술 공연단이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공식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와 사



보성군과 말레이시아 사바주가 최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축제 글로벌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 제공〉

바주의 카마탄축제 간의 상호 참가, 콘텐츠 교류, 공동 홍보 및 실무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단체 간 교류

를 넘어 축제 콘텐츠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글로벌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문화 공연 교류 행사는 양측이 전통문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성군립국악단'은 장구, 가야금 등 전통악기 중심의 정통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카마

탄축제 현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보성 관광 홍보 부스에서는 전통 소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메리 이시도어 말랑킹 (Mary Isidore Malanking) 사바주 제1차관은 "보성군과의 협력은 사바주 국제 관광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교류는 양 지역 간 문화외교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행민 보성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보성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자긍심 제고와 함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단발성 행사를 넘어 사바주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 고흥 녹동항서 '호남권 최대 규모 드론쇼'

### 7일 오후 9시...해상 불꽃쇼·버스킹 등

고흥 녹동항서 2025년 드론이 수놓는 호남 최대 드론쇼가 열린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9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년 드론쇼'를 개최한다.

녹동항과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드론 퍼포먼스와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2025대의 드론이 고흥의 3대 미래 비전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과 3대 교통 인프라 (고흥-광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흥-봉래 간 도로 확포장)를 형상화해 입체적으로 연출된다.

함께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는 레이저와 불꽃 효과를 통해 야간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드론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오후 8시부터는 버스킹 공연이 바다정원 일대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

며, 장어요리와 각종 회 등 신선한 해산물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고흥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농수산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드론쇼는 고흥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우나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드론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녹동항드론쇼 홈페이지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박현진 기자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철원 담양군수에 감사패 전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일 "전날 정철원 담양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써왔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일상적 소통, 대나무축제 기간 자율 참여 보장 등 근무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또한 대나무축제와 선거근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직접 운전 출·퇴근, 의전 간소화 등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철원 군수는 "전국시군구연맹에서 준 감사



패에 깊이 감사하다"며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군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

으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성군, 귀농농업창업·주택자금 융자 지원

### 20일까지 방문 신청...최대 3억

장성군은 3일 "오는 20일까지 '귀농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 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천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65세 (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

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 (061-390-7181)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지침과 신청서 서식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 곡성 동화정원에서 '마법의 환상' 아름다운 선율

### 15일까지 매주 토·일 미니 음악회

곡성군은 3일 "동화정원에서 미니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lossom Magic Fantasia 곡성 동화정원 미니 음악회'는 '곡성 동화정원, 마법의 환상으로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사진> 동화정원은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 하얀 메밀꽃과 노란 유채꽃을 약 33만578㎡ (10만 평)에 걸쳐 조성했다.

미니 음악회는 전자 현악듀오 '클래트릭'의 대표 연주곡 영화 '미션' OST 벨라판타지아 연주를 시작으로 환상적인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 등 화려하고 현란한 협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회는 오는 1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오



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동화정원 미니 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날리 울려 퍼져 곡성 동화정원을 찾는 이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정인화(오른쪽에서 세번째)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최근 출생 100일을 맞은 삼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두 번째 '삼둥이 가정' 100일 축하 방문

### 육아용품 구입비 전달 등

광양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삼둥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 100일을 축하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해당 가정을 찾아 삼둥이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큰 편지와 함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번째 삼둥이 가정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광양시 보건소는 백일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으며, 이광용 DYE 대표이사도 함께 방문해 삼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후원하며 기쁨을 함께했다.

또한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익명의 후원자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올해 100일을 맞은 두 가정에 각각 5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광양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쳐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삼둥이 가정은 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약 1천77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삼둥이 가정은 ▲출생축하금 3천만원 ▲첫만남이용권 800만원 ▲부모급여 5천400만원 ▲아동수당 2천880만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200만원 ▲전남도·광양시 출생기본수당 1억2천960만원 등 삼둥이 3명 기준 18세까지 약 2억8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삼둥이가 광양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 여수,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 내달 개장

### 바닥분수 9곳 27일부터 운영

여수시는 3일 "올해 역대급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성산공원(사진과) 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은 오는 7월12일 개장해 8월17일까지 운영한다.

3세부터 12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반 (10-12시)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예약과 선착순, 오후반 (2-5시)은 선착순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전 점검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매주 월요일과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등) 발효 시에는 시설 정비 및 저수조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예약은 7월1일부터 접수하며 성산공원 150명, 여문공원 50명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조성된 생각기움 체험놀이터 암골못공원, 강남정공원 2곳과 이순신공원, 동동공원, 해변문화공원 등 7곳 내 바닥분수는 27-8월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45분 가동, 15분



휴식으로 반복 운영된다.

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콜링포그는 정비를 마쳐 27일부터 가동되며, 이순신공장과 남산공원에 설치된 인공 분수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5월 초부터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